

# 朴斗鎭 詩에 나타난 基督教精神

李 雲 龍\*

目 次	
I. 詩變貌 및 研究傾向	2. '太陽'의 象徵性
II. 內面的인 詩特性	3. 人間社會 救援의 信仰
1. 再創造된 自然素材	III. 詩想의 聖書의 典故

## I. 詩變貌 및 研究傾向

1939년 『文章』誌에 「香峴」, 「墓地頌」이 추천된 朴斗鎭 詩人은 10권의 『朴斗鎭詩全集』<sup>1)</sup>과 2권의 詩論集<sup>2)</sup>을 上梓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現代詩史에 基督教詩人으로 기록되면서 일관된 詩觀을 견지하여 왔다.

그의 詩歷路程은 李洵植·朴太旭·金奉郡 등에 의하여 약간의 견해차를 보이면서 三段階 過程을 거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sup>

\* 원광대학교

- 1) 汎潮社에서 ('82~'84) 完刊하였음.
- 2) 『韓國現代詩論』, 一潮閣, 1970. 「現代詩의 理解와 體驗」, 一潮閣, 1976.
- 3) 李洵植, 「朴斗鎭論—變貌한 詩의 地平」, 『現代文學』, 1965.11 (통권 131호).  
朴太旭, 「韓國現代詩의 基督教思想」,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3.  
金奉郡, 「朴斗鎭論」(金奉郡·李龍男·韓相武 共著, 『韓國現代作家論』, 民知社, 1984).

朴斗鎭은 時代狀況과 인간적, 信仰의 성숙과 함께 詩精神이 深化·擴大되었으며, 素材와 意識志向에 따라 그의 詩歷은 三期로 구분된다.

제1기(40~50년대)는 『靑鹿集』 『해』 『午禱』의 시집이 나온 시기로서, 자연을 통한 긍정의 세계와 민족적 희망, 종교적 理想主義를 보여주고 있다.

제2기(60년대)는 『거미와 星座』 『人間密林』 『하얀 날개』의 시집이 나온 시기로서, 그의 시선이 자연에서 현실로 옮겨졌고, 역사적·사회적·현실적인 모순과 인간의 不條理에 저항, 民族愛·人類愛에 헌신하려는 휴머니즘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제3기(70~80년대)는 『高山植物』 『使徒行傳』 『水石列傳』 『續·水石列傳』 『抱擁無限』의 시집을 통하여 근원적인 存在問題에 천착, 神의 創造世界를 노래하는 信仰體驗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시의 변모는 自然→人間→神의 세계로서, 긍정적인 자연과 부정적인 인간사회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神聖의 세계와 같은 辨證法 과정을 그는 의식적으로 거쳤다고 본다. 朴斗鎭은 '이미 설계되어 있던 <자연>과 <인간>과 <신>의 三段階'를<sup>4)</sup> 꾸준히 深化·擴大시켰던 것이다.

지금까지 朴斗鎭研究는 그의 初期詩부터 자연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 50여 편의 評論과 論文이 발표됨으로써 이 시인의 思想과 詩精神의 근본 골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

본격적인 研究論文은 朴陽均<sup>5)</sup>을 비롯 金奉郡<sup>6)</sup>에 이르도록 李洧植<sup>7)</sup>·鄭泰裕<sup>8)</sup>·金一薰<sup>9)</sup>·金容稷<sup>10)</sup>·朴鎭煥<sup>11)</sup>·정현기<sup>12)</sup>·朴哲石<sup>13)</sup>·朴喆熙<sup>14)</sup>·오

4) 그의 자연이나 인간과 사회도 궁극적으로는 神의 공훈과 자비와 그 빛을 증거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汎潮社, 1970. p. 451.

5) 朴陽均, 「祈禱의 樣相—朴斗鎭論」, 『詩와 批評』, 1956.2.

6) 金奉郡, 「朴斗鎭論」(金奉郡外, 『韓國現代作家論』, 民知社, 1984).

7) 李洧植, 「朴斗鎭論—변모한 시의 地平」, 『現代文學』, 1965.11(통권 131호).

8) 鄭泰裕, 「朴斗鎭論」, 『現代文學』, 1970.4(통권184호).

9) 金一薰, 「朴斗鎭試論」, 『現代文學』, 1972.6(통권210호).

10) 金容稷, 「詩와 信仰—朴斗鎭의 경우」, 『現代詩學』, 1974.12(통권69호).

11) 朴鎭煥, 「朴斗鎭論」, 『韓國詩와 傳統』, 三寶文化社, 1975.

12) 정현기, 「朴斗鎭論」, 『延世語文學』 9·10합본, 1977.6.

13) 朴哲石, 「朴斗鎭論」, 『韓國現代詩人論』, 學文社, 1982.

14) 朴喆熙, 「朴斗鎭論」(徐廷柱外, 『現代詩人論』, 螢雪出版社, 1982).

동춘<sup>15)</sup>·洪申善<sup>16)</sup>·金賢子<sup>17)</sup>·朴太旭<sup>18)</sup> 등과 시집, 詩全集의 解說 혹은 書評으로 張一宇·金鍾哲·具仲書·李裕憬·신동욱·신대철·이상섭·吳世榮<sup>19)</sup> 등, 그리고 個人 著書나 批評으로는 丘昌煥·趙演鉉·徐廷柱·蔡奎判 등 16인의 연구업적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의 研究性格은 대략 朴斗鎭의 詩의 行路에 집중된 경향이지만, 자연에 대한 해석, 觀念과 體驗의 문제, 神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 예술성과 이념지향의 시, 신앙의 聖書의 근거, 基督教과 汎神論의 문제, 善惡對立의 價値構造, 에로스의 本質에 접한 시적 具現 등 異見과 同意와 자기주장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들의 見解를 종합, 고찰해 보면

첫째, 朴斗鎭의 自然觀에 대하여 徐廷柱·金奉郡은 에덴의인 自然 혹은 樂園 모티프로, 金春侏·朴太旭은 救援의 상징으로서의 자연이라고 말하여, 四人이 다 같이 基督教의 自然으로 보고 있다. 朴喆熙는 純眞의 세계라고 달리 이름붙여 李海植이 규정한 이상주의 자연과 일맥 상통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金容稷은 특이하게 東洋的 자연보다는 神 앞에 '내'가 의식되는 西歐的 자연에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기독교의 자연과 대립되는 汎神論的 자연을 주장하고 있는 趙演鉉·朴哲石은 朴斗鎭의 자연을 萬有協同의 최고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범신론 역시 李海植의 理想論과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결국 朴斗鎭의 자연은 기독교의 자연과 범신론적인 자연으로 양분법적 대립상을 보이는데, 존재의 궁극에 가서는 하나만의 原則, 곧 에덴의인 자연에 귀의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싶다.

둘째, 시와 인간과 삶의 窮極因을 基督教思想과 信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論究核心은 시와 신앙, 신앙과 시를 구별하지 않는 詩信仰一體의 等價的인 次元에 있으나, 다만 소재와 시정신에 따른 성격적 차이만을 달리하

15) 오동춘. 「兮山 朴斗鎭論—信仰詩를 中心으로」. 『國語國文學』(합본21). 大學社, 1982.

16) 洪申善. 「상승과 초월의 변증법—朴斗鎭의 시세계」. 『朴斗鎭』. 知識産業社, 1983.

17) 金賢子. 「朴斗鎭과 生命의 探究」. 『韓國現代詩史研究』. 一志社, 1983.

18) 朴太旭. 「韓國現代詩의 基督教思想」.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3.

19) 참고문헌 참조.

고 있을 뿐이다. 즉, 朴喆熙·오동춘·朴太旭은 朴斗鎭의 神의 속성을 경험세계로 보는 반면에 鄭泰榕·吳圭原은 實現不能의 관념 세계로 단언하고 예술성보다는 이념을 중시한 시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갈래를 좀 달리하여, 기독교의 終末論의 세계관으로 본 金鍾哲과 宗教的 神秘主義로 본 이상섭이 있으나, 이들은 시를 총체적 원칙 위에 또는 普遍性이라는 일반론보다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과 감각적인 소견으로 독단에 기울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비하여 메시아主義라고 말한 김현과 서서적 근거를 든 朴太旭의 논리는 매우 설득적이라고 본다.

세째, 金春洙·金奉郡은 朴斗鎭의 信仰態度가 神을 向한 救援의 절규는 있어도 참회에 무관심하거나 自己省察을 등한시한다고 하여, 金容稷의 ‘내’가 의식되는 서구적 對自然의 자세와 相反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논리를 재편성한 신대철은 참회에 필요한 자기혁명과, ‘나’를 깨닫기 위한 인간적 삶의 否定精神에 의하여 朴斗鎭 詩에 접근하였다.

신동욱과 金奉郡은 현실과 이상, 善과 惡의 정면대결을 거친 다음 朴斗鎭이 민족과 인류를 위한 宗教的 意志로 사회악과 불의의 현실을 극복해 간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미래에의 확신을 ‘기다림의 詩學’이라고 말하였으나 金一薰은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 실천의지로서의 ‘따라감의 詩學’으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吳世榮·金賢子가 역설한 휴머니즘과 똑같은 계열에 속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本稿는 이처럼 잡다한 주장을 一元化하여 자연, 인간과 사회, 神의 성체에 입성한 朴斗鎭의 基督教思想과 信仰에 주제를 겨냥하면서, 그가 지켜 온 生의 支柱, 곧 기독교 시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그의 시에 어떻게 용해되어 빛을 발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하여, 기독교시인 ‘朴斗鎭의 詩’를 聖書中 로마서 8장 (38~39절)의 말씀 속에 인용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生命力이 있는 詩論이 될 것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천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朴斗鎭의 詩도) 그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II. 內面的인 詩特性

朴斗鎭의 詩에 일관된 시정신이 무엇인가, 또는 文學史를 정리할 때에 어떤 한 시인의 변모된 양상을 기술한다고 하면 朴斗鎭의 시는 어떻게 기록되어야만 확실한 正說일까 하는 문제가 선결되면서, 基督教信仰과 基督教思想이 血肉化 된 그의 詩世界를 살피는 것이 韓國의 基督教詩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자연과 정서를 주제로 하여 일단 시의 우주를 형성했던 초창기부터 그는 시대적·민족적인 것을 비유·상징하는 媒材로서의 또다른 자연을 선택했던 것은 詩史的 意義로도 하나의 획기적인 사실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을 빌어 영원한 미래의 생명감, 진리에 대한 승리감을 노래했던 그의 낙관적인 세계는 4·19를 계기로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 때부터 그의 시는 불의와 죄악에 반항하는 인간적인 현실대응의 태세로 변모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불균형·모순·갈등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곧 人間探究의 世界로 回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生命意識과 正義의 절규는 宗教的인 높은 차원—인간·민족·인류적인 고뇌와 갈망이 해소되고 성취되는 神의 世界로 歸一함으로써 궁극적인 救援의 信仰體驗이 詩로 형상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의 詩觀을 단적으로 고백한 아래의 散文은 바로 朴斗鎭의 詩의 人生을 집약한 詩論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현실적 시사적 상황적인 것이 민족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 미적 윤리적인 것으로, 그리고 다시 그것이 내 인생으로, 그리고 또다시 그것이 汎人間·汎人生·汎人類의인 것으로 승화·집약되었다가, 결국 나 인생, 나 인간으로 되돌아오면서, 인간·인생과 인류·神의 문제로 歸着된다.<sup>20)</sup>

이렇게 그는 再創造된 자연과 그 긍정적인 命題로부터 출발하여, 否定된 人間社會를 순례한 다음, 다시 자연과 인간을 神의 攝理에 隨順하는 종교적 질서로 인식함으로써 그의 詩觀의 展開樣相은 辨證法的 論理에 닿고 있음을 파악할

20) 朴斗鎭, 『現代詩의 理解와 體驗』, (潮閣, 1976. p.209.

수 있다.

### 1. 再創造된 自然素材

이제 우리 詩文學史에 朴斗鎭을 ‘自然派 詩人’<sup>21)</sup>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詩出發 당시부터 ‘靑鹿派의 自然思想’과 결부되면서, 鄭芝溶은 그의 추천사를 통해 詩壇에 하나의 ‘新自然’을 소개한다<sup>22)</sup>고 한 것은 매우 암시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적 體臭가 ‘무슨 森林에서 풍기는 植物性的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나, 이전의 自然素材에 대한 ‘새로움’이라는 뜻에서 芝溶은 파생접사 ‘新’을 ‘自然’의 앞에 붙여 ‘新自然’이라 한 것으로, 여기에는 복합된 의미가 있을 뿐더러, 그의 自然素材가 獨自의 樣式 속에 再創造된 自然, 再發見된 自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朴斗鎭의 자연은 ‘韓龍雲·趙芝薰의 禪的 自然主義나, 徐廷柱·申石岬의 불교적 자연주의 내지 도교적 자연주의나, 朴木月·金素月の 外面的·客觀的 자연이나, 金永郎의 唯美的 자연주의와는 다른 內面的 자연, 主觀的 자연, 主體的 자연’<sup>23)</sup>으로서 그것은 請願的인 감정상태의 직립, 至高한 대상에 대한 서정적 自我의 內的 감동 및 긴장으로 표출되는 자연<sup>24)</sup>이다.

朴斗鎭의 自然이 이와 같이 내면적 주관적 주체적이기 때문에 자연을 實在的이라고 긍정한 朴喆熙는 朴斗鎭의 자연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場으로서 인간의 감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인간이 염원하는 이상향일 수도 있고, 또한 그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데아의 표상으로서 山, 하늘, 바다, 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신과 결합된 감각적 발상은 순전히 내발적이며, 이런 점에서 같은 靑鹿派 詩人인 朴木月과 趙芝薰과는 구별된다.<sup>25)</sup>

여기서 자연은 여러 모습으로 幻視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즉, 자연은

21) 丘昌煥. 「韓國文學의 基督教思想 研究」, 『韓國言語文學』 15. 1977. p. 226.

22) 鄭芝溶. 「詩選後」, 『文章』, 1940.1. p. 195.

23) 朴哲石. 「韓國現代詩에 나타난 自然觀」, 『現代詩學』, 1976. 2. pp. 125~126.

24) 朴喆熙. 「朴斗鎭論」(徐廷柱外 『現代詩人論』. 螢雪出版社, 1982. p. 343.).

25) 앞의 책. pp. 343~344.

인간과 交感하는 대상으로, 또는 이상향으로, 또는 이데아의 표상으로서, 정신 가운데서 솟아나는 內發的인 자연, 비유로 파악되는 자연, 그러한 것이 朴斗鎭의 自然素材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인생과 민족과 현실과 밀접하게 있는 內面化된 자연, 그 속에 神의 의지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眞善美와 聖의 근원으로서 존재 그 자체인 자연이다. 그러므로 현실도피나 또는 시인 자신의 감정이입의 수단으로 삼은 다른 자연과 시인들의 서경적 자연과는 전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그 자연은 '인생과 현실의식이 투영된 인생을 위한 자연'이며, 자연을 또 '시인이 노리는 어떤 주제성에 적합한 현실언어의 상징'<sup>26)</sup>으로 보았다.

이리하여 朴斗鎭의 궁극적인 이상이며, 민족이나 인류의 悲願으로서 영원한 평화와 기독교적 상징·비유로, 그의 思想을 전개하고 詩精神을 발현시키는 媒材가 곧 自然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徐廷柱가 일찌기 말한 것처럼 자연을 운명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자연, 유일신적인 자연으로서 일종의 '에덴적 이상으로 자연과 동화해야 한다'<sup>27)</sup> 하는 정신에 內在한 자연이다. 그런만큼 그는 자연 속에서 人間救援을 추구한다.<sup>28)</sup> 완전하고 이상화된 인간 교훈이 담긴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해석해 내며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朴斗鎭의 자연은 神과 人間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짐으로써, 그의 자연을 기독교의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柳致環의 그것은 汎神論的 자연주의에 기초하여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柳致環의 神은 다름 아닌 '無量廣大한 大自然과 宇宙를 지탱하고 있는 絶對의 意志'<sup>29)</sup>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神의 攝理를 발견하고 인간의 구원의 세계를 기독교적 자연관에 의하여 신앙하지 않는 데서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朴斗鎭의 경우, 자연숭배의 사상이

26) 李滄植. 「朴斗鎭論」. 『現代文學』, 1965. 11. p. 77. 자연을 현실참여의 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강조하였다.

27) 그는 구약적인 것을 '고대이스라엘적인 陽明性'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이다. 『韓國의 現代詩』. 一志社, 1969. p. 219.

28) 그의 시는 메시아의 再臨을 기다리는 것으로 차 있다. 이것을 열망하고 믿는 것은 자연에 깊이 문힐 때다. 金東里. 『文學과 人間』. 青春社, p. 76.

29) 非基督敎人인 靑馬는 대우주와 자연을 존재케 하고 있는 절대한 意思能力을 神이라고 부른다. 朴哲石.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자연관」. 『현대시학』, 1976. 2. p. 135.

아니라 人間과 唯一神과의 관계 설정에 의하여 살아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자연이다. 基督教의 自然은 바로 ‘영원의 투영으로서의 자연’,<sup>30)</sup> 영원의 한 存在態로 결정된 神의 攝理이다.

朴斗鎭이 추구하고 있는 자연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그가 쓴 「나의 詩, 나의 詩論」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여기에 내가 말하는 것은 물론 소박한 자연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자연, 사랑과 생명의 원리에 서 있는 자연, 다시 말하면 살아 있고, 아름답고,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 한 實在—은 우주에 遍滿해 있고 그 속에 內在해 있고 그 위에 초월해 있는 한 법칙, 생명과 사랑의 본질과 그 속성과 그 실재성, 그 주재자의 의지, 그러한 섭리에 조화하고 참여하고 통일하고 귀일하고, 그것으로 꽃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곧 이것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그것의 주재자요 생명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빛과 참과 선과 미이심 그 근원이요 발현자이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찬탄과 경이와 호소와 감사와 범열에 기도를 위한 詩로서 하는 탐구요 그 자제입니다.<sup>31)</sup>

朴斗鎭은 ‘한 實材’로서의 자연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곧 ‘영원에 이르는 그것의 주재자요 생명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빛과 참과 선과 미이심 그 근원’이며 ‘한 법칙’으로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탐구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하고 생명화하여 信仰的 形而上學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을 概念化하고 觀念化해 버리고 만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또는 人生論的 의미를 자연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모습은 갖가지 樣式으로 變容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관념화, 관념의 구체화는 다음 例詩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30) 박두진의 자연은 ‘동물적 투쟁상태를 충족시킨 화해와 포용의 실체요, 그 이미지를 표상한다. 그러기에 그의 자연은 범신론적인 위기에 처할 때도 있지 마는, 범신론적인 자연과는 다른 기독교의 자연이다. 기독교의 자연은 物活論(animism)의 자연이 아니다. 시에 등장하는 온갖 짐승들의 목록은 범신론적인 活物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어둠의 속성, 곧 어둠의 자아의 노출, 그 표상들인 것이다.’ 金奉郡, 『韓國現代作家論』. 民知社, 1984. p. 278.

31) 朴斗鎭. (김해성著, 『韓國詩論』. 進明文化社, 1975. p.323. 再引用).

- 1)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하늘 끝  
 마음으로 닿을 수 있는  
 마음의 마음 끝  
 어떻게도 이대로는  
 바라다 볼 수 없는

-「至聖山」 일부

- 2)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道峯」 일부

1)은 水石詩이다. 수석은 일종의 자연 사물이다. 이 구체적인 소재, 곧 자연을 앞에 놓고 그는 創造主의 위대한 능력을 파악해 내고 있다. 그가 이러한 소재, 곧 자연사물을 관념·이념시로서 완벽하게 형상화시켰고, 또 충분히 성공을 얻기에 이른 시들로 『水石列傳』 『續·水石列傳』을 들 수 있다.

한편 2)에서는 고독한 이 시인의 영상을 상상할 수 있다. 觀念의 具體化다.

이상에서 論究된 바와 같이 朴斗鎭의 自然素材는 可視의 外的인 대상이 아니라 不可視의 內的인 세계, 主體的으로 再創造된 조화로운 自然, 그리하여 그의 生命現實로 透視된 자연이며, 또 民族과 人類의 理想을 實現할 수 있는 自然이었다. 그리고 宗教의 이데아인 絶對肯定의 神의 世界를 추구하는 素材로서, 神의 攝理에 의한 人間救援의 基督敎의 自然이었다.

## 2. ‘太陽’의 象徵性

朴斗鎭은 太陽의 시인이다. 자연 그대로의 태양이 아니라 ‘새로 다른 太陽’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意志의 시인이다. 그 ‘태양’은 어둠과의 처절한 싸움 끝에 승리한 우리 민족의 光明이다. 이것은 압제 없는 自由와 平和의 實體이며 正義와 生命으로서, 理想的인 환희의 세계이다.

‘해’는 地上的인 생명과 天上의인 빛과의 관계 속에 新天地가 열리는 天地創

造的實在意味이며, 基督教思想과 基督教信仰의 핵심을 이루는 復活의 旣 모습이다. 太陽의 本質은 세계의 光明性에 있다. 광명의 참가치는 어둠을 경험하고 어둠의 고통을 극복함으로써만 얻어진다. 그것은 山이나 江, 풀, 나무, 짐승, 곤충 등의 자연사물이나 유기체와의 존재의미와도 절대적인 관련을 갖는다. 그래서 朴斗鎭의 自然觀이 배어 있는 初期詩는 '山'을 배경으로 하고, 우주의 한 中心體인 '太陽'을 대상으로 한 自然思想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山'의 地上的 이미지는 '靑山·바람'과 動植物 등의 자연과 관련되며, '해'의 天上的 이미지는 '太陽·하늘·별·햇볕·빛'으로 表象된다. 그의 植物性 根氣는 바로 이 靑山의 신선한 詩의 體臭와 희망적인 빛으로 하여금 神의 救援의 攝理로 표출되고 있다. 그 자연은 靜觀의인 外樣이 아니라 動的인 生命의 運動장이다. '山'을 소재로 한 시는 「香峴」<sup>32)</sup> 「雪岳賦」 「靑山道」 「道峯」 「靑山에」 「山아」 등을, '太陽'을 소재로 한 시는 「해」 「햇볕살 따실 때에」 「하늘」 등을 들추어 볼 수 있다. 이 중 '太陽'은 그 중심체다.

朴斗鎭의 자연 속성은 人間和解와 人類救援의 理想實現을 상징하며 에너의 조화와 질서를 비유한 자연이다.

1) 山이여! 장차 너의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숙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취순을 찾아 함께 즐겨이 뛰는 날을, 밍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香峴」 일부분

2) 언제 새로 다른 太陽, 다른 太陽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 본다.

-「雪岳賦」 일부분

3)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32) 高陽郡 新道面 소재의 香峴 [상고개]이라는 山고개마루.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p. 372.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해」 일부분

1)2)3)의 시들은 두 가지 自然思想, 또는 宗教的인 것을 主題로 희망찬 미래  
사회를 예시하였다.

첫째는 自然和解 및 人間和解의 思想이다. ‘여우·이리·취범’으로 대유된  
뿔의 무리와, ‘사슴·토끼’로 代喩된 善의 무리가 함께 즐거이 뛰노는 저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 그것은 善과 惡이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신의 너그러움으로 하여 비로소 天上界에  
이룰 수 있는 至高至純한 美的 가치를 획득한다. 이 시들이 일제치하에 쓰여졌  
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詩想은 惡의 통치자와 善의 피지배자와의 화해  
와 조화, 평화로운 미래세계의 幻視와, 나아가 박애주의 세계평화주의 사상을  
내포한 基督教의 人間和解와 연결된다.

1)은 기다림의 詩學이다. 朴斗鎭은 ‘확확 치밀어 오를 火焰’으로 상징된 밝  
음의 세계, 빛의 세계, 조국 광복의 벅찬 감격을 동경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달리 말하면, 그가 기다리는 날은 正義와 眞理와 眞實이 다  
시 서고 善과 惡이 和解하는 그런 날이다. 2)의 ‘太陽’이 다시 솟는 것, ‘무덤  
에서 부활’하는 것은 기독교의 復活思想이다. 이것은 絶對하고 영원한 평화와  
이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약성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구원의 날’을 연상케<sup>33)</sup>  
한다. 그의 메시아主義는 약육강식이 없는 地上樂園의 도래, 원시적인 평화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다.<sup>34)</sup> 이 詩想이 구약성서 이사야서와 일치된다는 것은 朴  
太旭의 論文에서 밝혀졌다.

늑대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당굴며

33) 朴太旭. 「韓國現代詩의 基督教思想」.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p. 11.

34) 김 현. 앞의 책. p. 268.

새끼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붙고 다니리라.

-성서 「이사야서」 11 : 6

이처럼 '젓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젓뱀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는 성서적 낙원 모티프에서, 그리고 기독교적 인생관 및 역사관에 의하여 영원한 평화와 이상을 이념으로 希求한 데에서도 朴斗鎭의 宗教的 自然思想과 詩的 志向의 목표가 결국은 '신의 모습 드러내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해'의 영원성과 光明性, 자유와 평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이상과 구원의 자연사상이다.

'해'의 정신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조명된 바 있으나 朴斗鎭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秩序와 美와 眞實과 眞善의 영원한 성취를 이상하였고,  
나대로서의 완전하고 그지없이 熱烈하고, 無限大한 希願을 더할 수 없는 唯一絶  
對한 나대로의 詩的 形象의 實體를 잡아 高唱해 본 것이다.<sup>35)</sup>

이에 앞서 그는 8·15해방의 역사적 轉機가 '해'의 詩作動機였고, '자연과 인류와 온 實在에 대한 한 절대가치적인 이념을 전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영원한 사랑의 원리와 섭리에 의한 조화와 질서 속에 환희와 평화를 가져오는 절대세계, 궁극적 이상적이며 우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민족과 인류구원의 세계를 主題化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제 朴斗鎭이 再發見한 自然, 再創造한 自然 가운데 '해'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의미 파악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 1) 조국 광복을 염원한 默示의 世界에 대한 기다림이다. (朴哲石)<sup>36)</sup>
- 2) 낙원을 앞세운 神의 경지의 萬人共和國이다. (鄭泰裕)<sup>37)</sup>

35)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p. 385.

36) 朴哲石. 『朴斗鎭論』. 『한국현대시인론』. 學文社, 1982. p. 241.

37) 鄭泰裕. 『朴斗鎭論』. 『現代文學』, 1970. 4. p. 298.

3) 민족·인류의 미래에 대한 광명과 그 역사적 재생에 대한 신념이다. (李永傑)<sup>38)</sup>

4) 사회적 정의와 자연이 화합하는 이상주의세계다. (金柱演)<sup>39)</sup>

5) 메시아의 도래를 표상한다. (김현)<sup>40)</sup>

6) 민족적 광명이다. 즉, 민족의 장래와 이상과 염원을 본다. (李洵植)<sup>41)</sup>

7) 에로스의 詩的 具現이다. (朴鎭煥)<sup>42)</sup>

8) 인간의 긍정적인 가치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이다. (朴太旭)<sup>43)</sup>

와 같이 ‘해’는 歷史的 再生인 조국의 광복이나 광명, 萬人共和國, 理想主義 세계, 메시아의 再臨, 에로스, 궁극적인 가치와 생명의 세계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의 太陽志向性은 결국 믿음·소망·사랑의 基督教의 信仰觀이며, 민족애·인류애를 본질로 세계평화에 기여코자 하는 基督教의 倫理觀, 그 理念의 표상이다. 빛은 운명적으로 어둠을 거느린다. 朴斗鎭의 빛의 세계는 그러한 어둠, 죽음, 어떤 종말로부터 새로운 비약을 꿈꾸고 희망과 신념으로 그것을 초월한 純粹永遠의 세계, 絶對的인 理想世界를 一元化하는 基督教信仰의 한 象徴體系이다.

그의 시에 ‘해’의 속성이 직접 간접으로 표현된 詩句—‘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해」),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靑山道」), ‘언제 터질 그 찬란한 크낙한 아침’(「年輪」), ‘햇별살 따실 때에 나를 와서 안아라’(「햇별살 따실 때에」) 등은 ‘해’ 자체나 빛의 뜻이 직접 표면에 서술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와는 달리 간접으로 ‘해’의 속성이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詩句들, 곧 ‘나는 하늘을 마신다’(「하늘」), ‘일제히 인류가 합창을 부르는 날’(「장미의 노래」) 등이 바로 그러한 밝고 기운찬 地上의 驚異와 생명의 喜悅을 노래하고 있다. ‘해’가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 진리, 사랑, 구

38) 李永傑. 「英美詩와 韓國詩」. 文學藝術社, 1981. p. 89.

39) 金柱演. 「나의 갈은 나의 作品」. 民音社, 1975. p. 38.

40) 김 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p. 268.

41) 李洵植. 「朴斗鎭論—變貌한 詩의 地平」. 「現代文學」, 1965. 11. p. 79.

42) 朴鎭煥. 「韓國詩와 傳統」. 三寶文化社, 1975. p. 156.

43) 朴太旭. 「韓國現代詩의 基督教思想」.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p. 14.

원, 평화, 절대의 궁극적인 이상은 그러므로 基督教思想에서 생성, 개화한<sup>44)</sup> 朴斗鎭의 시세계이다.

그의 '해'는 天上의인 것을 표상하는 빛의 相關物(이미지)<sup>45)</sup>로서,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애원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獨尊的으로 '해야 솟아라'하고 儀를 외치고 명령하고, '해'를 주관적으로 창조하며<sup>46)</sup> 그렇게 儀가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希求한다. 그의 詩儀<sup>47)</sup>는 그가 '해'의 모습에서 그 근원의 흠음을 발견한 詩象이다. 그래서 '해'는 예지적 美로 나아가는 이데아 추구의 心機로서, 朴斗鎭의 觀念을 대변하고 主導的 役割을 하는 심상이다. 사실 모든 심상은 '해'라고 하는 하나의 主體를 立像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해'가 없는 다른 심상들은 意義를 잃게 된다.<sup>48)</sup> 金東里와 김현이 朴斗鎭의 시를 두고 人間救援을 위해서 메시아의 再臨을<sup>49)</sup> 기다리고 믿게 되는 것으로 본 이유도 실은 '해'의 이러한 시적 조정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제 歷史意識과 歷史現實의 관점에서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 어떻게 기독교의 구원의 빛으로 '太陽'을 노래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 例詩로서 파악되는 문제이다.

北邯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만 무덤들 외롭지 않아어.

무덤 속 어둠에 하이얀 족루가 빛나리. 향기로운 주검잇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던 주검 죽었으며 이내 안서럽고, 언제 무덤 속 화안히 비취 줄 그

44) 朴太旭. 앞의 책. p. 14.

45) 金奉郡. 앞의 책. p. 281. '어둠·밤·달·이리·침범' 등은 地上的인 어둠의 상관물이다.

46) 鄭泰禧. 「朴斗鎭論」. 『現代文學』, 1970. 4. p. 298.

47) 尹在根. 「韓國代表詩評說」. 文學世界社, p. 243. '人'과 '義'를 합하여 會意한 까닭은 사물의 原型的 詩象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해'의 나타남이 '儀'를 형용한 詩象(Poetic image)인 것이다.

48) 朴鎭煥은 프라토적 에로스의 兩面性 중, '해'의 본질을 풍족과 부유를 갈구하는 포로스의 에로스 보았고, 朴斗鎭의 다른 詩인 「至聖山」을 빈곤·부족을 느끼는 케니아의 에로스 보았다. 『韓國詩와 傳統』. 三寶文化社, 1975. p. 156. 金春朱. 「意味와 無意味」. 文學과知性社, 1976. p. 208.

49) 金東里. 「文學과 人間」. 青春社, p. 76.

김 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p. 268.

린 太陽만이 그리우리.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뻘이 뻘이 배, 뱃종! 뱃종! 뱃새들도 우는 데, 봄별 포근한 무덤에 주검들이 누웠네.

-「墓地頌」 전문

여기 ‘그리운 太陽’은 일제치하의 억눌림에서 조국 광복의 새 삶을 希求하는 속뜻이 담겨 있다.

朴斗鎭은 이 시를 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시대가 가져다 주는 심각한 暗黑性과 나 자신의 일신적인 환경이 그렇게 해 주는 뺨고 눈물겨운 쓰라림에 짓눌리며 암담하고 빠져린 시련을 겪으면서 있었다. 그러한 時代苦와 정신적 내적 일신적인 고초와 시련을 나는 전혀 나 자신의 힘과 정신적인 인내와 항거로써 극복하려 하였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sup>50)</sup>

일제치하의 시대고를 ‘인내와 항거’로 초극하려는 당시의 詩人意識을 잘 대변하고 있을 뿐더러, 사회적 환경의 갈등을 內的으로 연소시키려는 쓰라림이 앞의 引用詩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무덤’ 속의 ‘주검’인 것이다.

그는 「墓地頌」이 ‘당시의 신앙 생활에의 새로운 驚異와 함께’ 형성되었음을 밝히면서, 이 시에 담고자 한 內容을

人間의, 人生의 혹은 民族의, 혹은 人類의 熱烈한 悲願, 熱烈한 念願, 꿈은 수 없이 강렬한 동경이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죽음에의 生命, 죽음에서 復活을 갖는 그러한 熱願을 오히려 정돈되고 가라앉힌 감성으로, 不滅의 宗教的인 믿음으로 가져보고 노래해 보고 信願하였다.<sup>51)</sup>

고 말함으로써 人間, 人生, 民族, 人類가 바라는 所望을 ‘復活’의 宗教的 믿음으로 노래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살아서 기꺼운 삶이 서러운 ‘주검’이 되었고, 그 서러움은 반대로 죽음으로서

50)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一潮閣, p. 371.

51) 朴斗鎭, 앞의 책, p. 374.

해소되어 救援을 받는다. 그러나, ‘무덤’ 속의 구원은 영원성이 없다. 거기에 밝은 ‘太陽’이 비치므로서 어둠은 사라지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그의 歷史意識이 있다. 말하자면, 긍정적인 미래는 현상적 ‘밝음’ 속에서보다는 오히려 현상적 ‘어둠’ 속에서 구원의 희망에 넘칠 수 있다.<sup>52)</sup> 이것은 基督教思想에 근거된 삶의 인식으로서, 예수의 十字架 고통과 수난의 역사에서 ‘무덤’의 復活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의 의미를 내포한다.

주지된 바와 같이 ‘해’는 메시아의 降臨과 회복된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生命, 復活, 眞理, 사랑, 救援, 自由와 平和, 理想世界의 속성으로서, 朴斗鎭이라는 한 사람, 全民族, 全人類에 공한 所望이며 삶의 原初的 기쁨을 表象한다. 그의 시에 있어서의 모든 心象은 이 ‘해’를 중심으로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여 ‘해’가 없는 다른 심상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초기의 시 「香峴」「墓地頌」「해」「雪岳賦」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를 기다리고 믿고 강렬하게 希求하던 그는 6·25동란의 비극적 歷史體驗을 통하여 自然과는 잠시 거리를 두고 神 앞에 救援을 호소하는 회개의 詩精神을 보인다. 이 때부터 實存의인 人間意識으로 민족과 인류 전체의 빛 삶을 神에게 의탁하는 휴머니즘의 성격과 信仰的 믿음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4·19를 계기로 政治惡·社會惡의 非理와 不條理가 삶의 모순·갈등으로 인식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어둠의 實體와 정면대결함으로써 그는 正義를 세우는데 햇불을 들었던 것이다.

### 3. 人間社會 救援의 信仰

朴斗鎭은 중기에 들면서 어두운 역사와 비극적인 현실의 압력에 저항하는 시인으로 변모되었다. 그는 죄악과 불의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 신앙과 정의의 투쟁사를 남기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으며, 또한 기독교 정신에 의해 社會現實을 改革하려는 것이 當時的인 대결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詩는 사회 矛盾에 대한 고뇌와 內的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의 悲劇을 알몸뚱이로 돌파하는 義의 선봉에 선 자의 외침이었기 때문이

52) 조장환(『한국현대시작품론』, 文章社, 1981. p.315).

다. 그는 어둠을 惡의 實體로 파악하였고, 현실은 이 어둠이 뒤덮고 있는 혼돈의 세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朴斗鎭의 天上的 平和에의 갈원은 地上的 不義를 바로잡으려는 使命意識으로 충일되었으며, 그것은 4·19의 역사적 轉機와 함께 '자유와 죽음의 對位法'<sup>53)</sup>으로 發現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실증해 주고 있는 詩들은 「旗」「꽃과 港口」「우리는 보았다」「우리들의 기빨을 내린 것이 아니다」「바다의 靈歌」등인데, 여기에는 朴斗鎭의 人間觀·社會觀·歷史觀·現實觀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의 詩的 志向과 목표가 무엇이었던가는 다음 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나는 높은 꼭대기에서의 노래에서 내려오고 싶어졌다. 天上的인 황홀하고 찬란한 봉우리에 대한 갈망과 동경에서 내려오고 싶어졌다. 단순하고 가락이 미끄럽고 悠長하고 孤高한 높이에서의 동경으로부터, 되도록 地上的인 現實의인 마당과 그 혼돈 속으로 내려오고 싶어졌다. 밝고 肯定的이고 絶對的인 세계의 높이로부터, 그러한 理想的이고 너무나 타당하고 진실한 성신에의 追求로부터, 어둡고 罅에 차고 모순 투성이고 罪에 찬 생생한 오늘의 세계로 내려오고 싶어졌다. 초월적인 觀照를 주로 한 좁은 純粹로부터, 그 概念과 指向과 體驗을 확대하고 풍부하게 활용하여, 더 幅이 넓고, 깊이가 깊고, 綜合的이고, 광범하고, 그리고 眞率한 正面으로부터의 對決을 하고 싶어졌다.<sup>54)</sup>

그의 詩의 영토는 곧 現實이며 오늘의 상황이고, 詩의 목표는 어둠과의 正面 對決이라는 투쟁의지를 결의하고 있다. 그런즉 '天上的이며 초월적인 것'에서 '地上的이며 현실적인 세계'로 내려온다는 것은 필연적인 단계였던 것이다.

그는 '現代'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罪惡視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적인 관심조차도 肯定的인 현실이 아니라 否定的인 현실, 곧 참다운 삶의 意義가 추방된 죄와 矛盾의 현실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諷刺나 아이러니, 패러독스보다는 직접적인 批評, 告發形式을 詩의 표현효과로 생각했다.

1) 이리메여.

그 純烈들의 피를 흠쳐 새운 惡을 糊塗하고,

53) 김 현, 「朴斗鎭 혹은 自然과 분노」(김윤식·김현 著,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p. 269).

54)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一朝閣, 1970. p. 450.

純民들의 墓標<sup>2</sup> 팔아 私利에 貪婪하는,  
이리메여,

-「우리는 보았다」 일부분

2) 오래고 억울한 사무침을 위하여, 헛바닥을 위하여, 어금니를 위하여,  
발톱들을 위하여, 핏대들을 위하여,  
약탈을, 살륙을, 겁탈과 결투,  
승리를, 눈주름, 패배들을 위하여,  
정복을, 추격을, 피흘림을 위하여,  
일어나라.

-「봄에의 檄」 일부분

‘이리메’로 代喩된 惡은 ‘民族惡·政治惡·社會惡·人間惡의 不純한 피’로 서술된 어둠의 實體로서, 그의 惡에 대한 항거와 對決意志가 ‘피흘림’을 통하여 全身으로 격렬하게 작용하고 있다. 善과 惡의 혼돈을 그대로 현대의 모순된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피흘리며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역설의 美를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義의 선봉에서 투쟁을 자각한 그의 실천의지이다. 그리하여 歷史現實의 개조작업에 동참하려는 사명감이 이 시인의 宗教的 倫理觀에 힘입어 民族의 미래에 대한 確信으로 심화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人間社會의 救援을 神계 호소하는 信仰心의 ‘팽창과 충전과 연소’를 靈感의 具象化로 응결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朴斗鎭이 이렇게 直投的이고 革命的인 絶叫을 분출시키며 분노에 차 있고, 惡에 의 항거가 세찰수록 그가 의지해야 할 존재는 바로 하느님이었다.

바람이 술이 되고  
햇별이  
눈물이 되고  
저승과 이승을 위한  
늡으신 主禮는  
지금 沈默.

-「孤獨의 江」 일부분

그러나, 이 시에서처럼 ‘主禮’는 ‘지금 沈默’ 중이다. 어떠한 말씀도 행위도

책망하거나 또는 축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는 ‘술’의 향기와 ‘햇볕’의 따스함이 의미하는 미래세계의 안위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나 열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 1) 가슴을 살이 와서 쫓힐지라도  
 독을 바른 살이 와서 쫓힐지라도

가슴에는 자라나는 애기해가 하나  
 나긋나긋 새로 크는 애기해가 한 덩이

-「山脈을 간다」 일부분

- 2) 인간밀림 하늘에서  
 초록비가 내려라.  
 인간밀림 하나 가득  
 햇살이 쾅쾅 쬐어라.

-「人間密林」 일부분

현실부정적 분노와 피해의식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애기해’가 자라나고, 인간세상에 ‘초록비’가 내리며, ‘햇살이 쾅쾅 쬐어라’고 하는 이 강렬한 請願과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그의 初期詩가 일관해서 지향했던 주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해’로 表象된 자유와 평화, 정의와 진리, 영원한 생명과 부활, 神의 攝理, 궁극적인 人間救援 등의 希願, 그러한 基督教思想과 基督教信仰을 통해서 메시아의 再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詩精神이 여기서도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는 歷史現實의 비극적인 인식마저도 오히려 그 비극을 초극한 理想世界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이 점이 그가 자각한 基督教思想의 辨證法이다. 그의 시의 위대함은 이처럼 현실대응의 방법이 正面對決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신앙의 근본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한편으로는 現實告發의 걱정과 분노를 그대로 지닌 채, 다른 한편으로는 救援을 위한 신앙에 철저했던 그의 믿음은 값진 것이고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현실에 투사되어 있는 그의 혁명적 민족적인 의식의 추구정신은 바로 ‘無限革命, 끝없는 完成에의 不滅의 투쟁, 大眞理의 具現을 위한 선언’<sup>55)</sup>

55) 朴斗鎭. 앞의 책. p.458.

이었던 것이다. 그의 시대와 민족과 인류에 대한 사명은 ‘不滅의 자유, 불멸의 진리, 正義, 사랑, 善, 理想의 궁극적인 성취와 쟁취’를 위한 전제였기 때문에, 이 또한 天上에의 신앙이 地上에의 신앙으로 변모된 또다른 하나의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朴斗鎭의 열기와 집념은 「바다의 靈歌」에서 더 具體적으로 나타난다. 즉, 그 가슴 속에서 ‘太陽은 太陽을 낳고, 빛은 빛을 낳고, 열은 열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불길은 불길을 낳고, 革命은 革命을 낳고, 피는 피를 낳는다’는 것은 자연순환의 원리에 기초한 因果論的 當爲性이라기보다도 基督教의 眞理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再臨에 대한 기다림이 고난받는 골고타의 歷史現場으로 詩想을 집중시켜 當時代의 아픔을 비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기독교 정신을 대표하는 詩的 모티프가 수난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絶對信仰, 그 본질에 순응하려는 朴斗鎭 시인의 초월의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詩는 否定的인 일체의 것을 극복하고 구원의 새생명을 갈망하는 그의 신앙이 잘 용해되어 있다.

오, 너무도 엄청나게 높은 데 계신 이여  
 빌다가 흘리시는 당신의 눈물  
 그것 한 방울만 내 앞에 주세요.  
 앉아서 귀여 듣는 검은 이 바위를  
 그것으로 뚫어 내려 샘이 되게 하세요.

오, 빌다가 흘리시는 당신의 땀방울  
 그것 한 방울만 내게도 주세요.  
 빈 이 가슴에다 그것을 받아  
 천 년을 나지 않는 불모의 이 들에  
 뿜는 듯 뿌려가면 그 자리마다  
 다복 다복 꽃밭들이 솟아나게 하세요.

- 「禱願」 일부분

인간들의 罪性에 대하여 ‘당신’은 눈물과 땀방울을 흘린다.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연민과 회한, 자기 희생을 힘 입어 그 능력으로 ‘검은 바위’를 뚫고

‘불모의 들’을 ‘꽃밭’으로 만들고자 禱願하는 이 시인의 참사랑의 자세는 분명히 비인간적이고 잔악한 억누름을 뚫고 영원한 삶 지향의 救贖史觀에 의한 사랑의 실천 강령이었음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 그는 宗教의 信念을 詩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理念的인 가치를 우위에 두고 인간에 普遍하는 소망, 곧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기도한다. 그것은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는 공격적이고 필사적인 대결의 언어이면서도 마지막에 있어서는 絶對肯定의 진리와 사랑으로 귀일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朴斗鎭에게 있어서 不義를 正義의 불로 이해하고 있는 吳世榮은 ‘모순과 갈등이 심할수록 강한 생명의 의지를 느끼고 보다 충만한 삶의 의욕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朴斗鎭의 生에 대한 역설적 태도는 기독교적 휴머니즘으로부터 연유한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의 것에 있어서 부정될 수 없는 어떤 絶對肯定의 세계가 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기독교의 역설, 朴斗鎭이 삶을 비록 어렵게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무한한 신뢰와 희망을 두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고백하고 또 하늘로부터 삶의 敎示와 구원의 목소리를 듣는다. 즉 하늘에 대한 고해성사가 그의 시에 해당하는 셈이다.……이처럼 이 세계가 결국 神性의 표상이라면 그것은 종국적으로 正義가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sup>56)</sup>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不條理에 대한 삶의 인식이 ‘絶對肯定’의 基督教의 역설적 미로 승화되어 ‘神性’을 갖게 되는 것이 朴斗鎭의 詩다. 말하자면, 외적 현실에 착색된 자아가 그것을 부정하고 규탄하면서도 내적 자아로부터서는 새롭게 匡正되어 구원에 이르는 변증법적 삶의 한 방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朴喆熙는 이러한 현실과악의 방법이 정신적인 경험세계로 발전함에 따라 ‘二元的 질서의 자각’<sup>57)</sup>으로 보았다. 신동욱의 「역사에 있어서 결핍과 충족의 변증법」<sup>58)</sup>이나 朴鎭煥의 「에로스의 본질과 시적 구현」<sup>59)</sup>도 결국은 吳世榮·신동욱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眺望에 있어서 결핍으로부터 충족에의 지향’이라는

56) 吳世榮, 「휴머니즘의 옹호와 자연의 의미」(『朴斗鎭詩全集』 8. 범조사, 1984, p. 285).

57) 朴喆熙, 「朴斗鎭論」(徐廷柱外, 『現代詩人論』, 형설출판사, 1982, p. 350).

58) 신동욱 (『朴斗鎭詩全集』 7. 汎潮社, 1984, p. 273)

59) 朴鎭煥, 『韓國詩와 傳統』, p. 153.

상승적 양면성, 바꿔 말하면 朴斗鎭 詩가 그러한 ‘二元的 질서의 자각’에 있는데 다 같이 동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朴斗鎭은 天上의인 초월의 높이로부터 地上的인 어둠의 세계로 내려와 歷史現實의 悲劇에 동참하였고, 여기서 파생된 時代苦와 갈등을 基督教信仰으로 극복한 正義와 信仰의 基督教詩人이었다. 그는 現代惡과 人間罪性에 저항, 정면대결을 불사하였지만 이러한 그의 否定精神이란 것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神 그 絶對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大肯定인 것이며, 이를 믿고 바라는 辨證法的 基督教史觀에 기초하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朴斗鎭의 詩는 고발과 저항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항상 神의 그림자가 보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역설의 美學인 것이다.

### Ⅲ. 詩想의 聖書의 典故

朴斗鎭의 詩를 생각할 때 궁극적인 神의 세계, 영원한 신의 사랑과 그 攝理史觀, 救贖史觀, 絶對眞理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의 信仰과 詩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의 絶對主義의인 基督教信仰과 基督教思想은 곧 인류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과 이념 아래 그리고, 이 세계와 우주도 신의 영원한 完成을 향해 열려 있다고 믿고 또 바라는, 人生觀·世界觀과 응화·합일된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信仰詩를 갈래짓는다면 二元目的에 의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평적으로는 종교적 敎理에 얽매이지 않고 宗教意識 혹은 基督教精神을 言語化한<sup>60)</sup> 先驗的인 想像體系이다. 이것을 관념적 로멘티시즘<sup>61)</sup>의 시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다. 메시아의 再臨을 기다리는 초기의 基督教詩와 자신의 고독한 의지 또는 초월자의 의지<sup>62)</sup>로 인식되는 시집 『水石列傳』 『續·水石列傳』

60) 丘昌煥. 「韓國文學의 基督教思想 研究」. 『韓國言語文學』 제15집, 1977. p. 227.

61) 權菊命. 「한국 현대시의 종교 수용문제」(大邱 가톨릭文友會, 詩와 散文集·3.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대건출판사, 1986. p. 131).

62) 朴哲石. 「朴斗鎭論」. 『韓國現代詩人論』. 學文社, 1982. p. 247.

이나, 인간의 삶을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汎宇宙的으로 확산하고 있는 『野生代』<sup>63)</sup> 등 대부분의 신앙시가 이에 해당된다. 수직적으로는 기독교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神學的 혹은 基督教史觀에 의하여 敎理나 聖書의 典禮와 故事에 충실함으로써 絶對神性을 수용, 聖書의 場面과 福音을 詩化한 경험적인 信仰詩이다. 그것은 예수의 주요 행적을 따라 신앙체험을 쓴 「使徒行傳」과 십자가상의 예수의 죽음을 쓴 「갈보리의 노래」와 다른 短詩들에서 散見된다. 일례를 들면, 「흰 장미와 백합꽃을 흔들며」는 구세주의 도래를, 「橄欖山 밤에」는 베드로의 예수 배반을, 「바다」는 기적을 행한 예수를, 「創世記 波濤」는 天地創造의 순간을, 「어떻게 나를 빛으셨을까」는 현존재인 인간의 '있음의 신비'를, 「뜨거운 傷處」는 피흘린 그리스도精神의 참뜻을, 「蕩子恨」은 죄의 구원에 대한 頌歌를 이루어 그의 시는 信仰世界의 절정에 도달해 있다.

이와 같은 朴斗鎭의 기독교적 兩面性은 의식세계로서의 수평축과 신학세계로서의 수직축이 함께 하나로 만난 자리에서 그의 신앙적 倫理意識과 神學的受容美學은 全人生, 全宇宙로 확산, 絶對神에 의하여 그 完成을 기대하는 二元의 目的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의 宗教的 人間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아래 글의 復活의 의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宗教的인 渴望과 願望은 곧 인간적인 갈망과 원망이라야 하며 復活이 人間理想의 한 絶頂과 完成을 의미한다면, 그 완성의 형태는 인간이 地上에서 할 수 있는 最絶頂의 希求여야 하고, 인간이 지상에서 겪는 모든 不完全한 缺陷으로부터 오는 悲劇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sup>64)</sup>

종교적인 세계가 곧 인간적인 세계이며, 따라서 인간적인 세계의 완성은 비극을 극복한 復活의 理想世界에까지 도달할 때 성취된다는 것이다. 인간존재의 비극성을 '이리'의 운명성으로 표현한 시 「달과 이리」는 이러한 기독교적

63) 吳世榮. 「휴머니즘의 옹호와 자연의 의미」(『朴斗鎭詩全集』 8. 汎潮社, 1984, pp. 287~289). 오세영은 인간과 우주의 문제를 ① 生에 대한 畏敬, ② 汎神論의 우주관, ③ 자연화된 인간을 동경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pp. 290~291.

64)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一潮閣, 1970. p. 416. '이미 일상화된 종교감정이나 의식화되고 생활화된 종교적 정서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호흡하는 사람일수록 생생한 시로서 형상화하기 지난하다. 거든나 성서적인 신비나 기적들이 풍기는 시적 이미지는 그것을 다루어 오고 관념해 본 사람에게는 별반의 시적 충동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이 높게 드러나 있다.

朴斗鎭의 시를 聖書의 典故에서 따져 볼 때는 그 비유적인 표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성서는 神의 존재의 뜻을 비유로 기록했기 때문에 默示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깨닫도록 되어 있다.

基督教詩에 관한 한 朴斗鎭의 시적 발견은 두 가지임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論究된 것으로서, 기독교적 상상력, 즉 宗教意識을 美的으로 승화시킨 시세계이다. 또 하나는 本稿의 연구목적으로서, 영원한 神의 뜻을 담고 있는 聖書 속의 眞理가 聖書의 典禮와 故事를 어떻게 형상화하여 시와 일치시켰고, 聖書 자체가 시의 소재원으로서 어떻게 信仰體驗을 시에 반영시켰는가이다. 이 문제는 朴太旭의 論文<sup>65)</sup>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을 뿐 총체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래서 本稿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朴斗鎭은 「詩的 救援과 宗教的 救援」이라는 그의 散文에서 ‘시와 종교의 일치, 그 동시적 추구하고 실현이 곧 인간적인 것의 일치로 본다’고 하여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시가 모든 정신적 진실, 인간의 기저가치 기능과 그 지향의 종교적 목표를 이 종교적 지향과 그 목표로 일치시키고, 그렇게 일치될 때에만 비로소 그러한 예술 그러한 시적 추구하고 그 과정은 바로 더 높은 구원, 종교적 의미의 구원의 길에까지 이르게 하는 현실적 삶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sup>66)</sup>

만약 여기서 말한 ‘종교적’인 것을 ‘성서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詩思想은 모두가 聖書에 典據하고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러한 단적인 근거는 聖書語句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詩 「聖內在」의 어느 부분은 「요한의 복음서」 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sup>67)</sup>와 같은 語句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65) 朴太旭, 「韓國現代詩의 基督教思想」, 1983. 이 논문에서는 朴斗鎭의 詩 「香峴」을 성서의 「이사야서」 11장6절과 비교했고, 「머나먼 갈보리 그 뜨겁고 진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빛방울」을 「요한의 복음서」와 비교했음.

66) 朴斗鎭(朴哲石著), 「韓國現代詩人論」, p.237. 再引用).

67) 요한 14:10.

어떻게  
그다지도 빨리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았는가.

-「聖內在」 일부분

이러한 詩想에서 그 상황만을 바꾸어 형상화한 시를 보아도 그의 시를 이루고 있는 神中心의 宇宙는 聖書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당신은 내게서 가장 멀리에 계시고,  
내가 가장 당신의 멀리에 있을 때 당신은 가장 내게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가장 안에 계시면서 가장 밖에  
가장 밖에 계시면서 가장 안에 계시어라.

-「使徒行傳·15」 일부분

神과 人間과의 숙명적인 관계를 노래한 시다. 인간은 神의 영역 밖에 있으나 神과 함께 있는 존재이며, 궁극적으로는 침묵이나 미움, 사랑, 분노, 피흘림, 외로움, 서러움, 잠드는 일 등 인간존재의 그 모든 원인과 결과도 神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攝理史觀에서처럼 朴斗鎭의 基督教詩는 일관된 聖書의 절대주의 詩觀을 유지하고 있다. 權菊命이 지적한 대로 ‘그는 세계정신이나 세계의 실체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보적으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회의주의를 거부하고 있다’<sup>68)</sup>는 태도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基督教詩는 文化史의인 시간을 초월한 성서에서 그 모든 세계정신의 가치를 발견해 내고 이것을 詩化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朴斗鎭의 초월의 시간, 초월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시의 실체는 성서를 中核으로 한 想像體系이다.

68) 權菊命. 「한국 현대시의 종교 수용문제」(大邱 가톨릭文友會, 詩와 散文集·3.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대전출판사, 1986. pp.131~133). 즉, ‘세계정신이나 그 실체는 처음부터 절대적인 것이어서 변화될 수 없다. 거기에는 어떤 문화사적인 단층을 찾아볼 수 없이, 시대적인 상황의식이나 문화사적인 의식이 배제되어 있다.’

성서 중에서도 특히 4복음서<sup>69)</sup>와 「창세기」와 「로마서」에 그의 全思想이 집중되어 있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는 詩全體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 속에 예수의 산상설교가 오버랩된 시다. 이 시는 성서 중 ‘참된 행복’<sup>70)</sup>을 典禮로 짜여져 있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굶주리고 헐벗은,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을에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눌리우고 시달린, 서럽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과 피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한 눈물과 피를 흘리시려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3·4연

이 시의 聖書의 典據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sup>71)</sup>의 語句가 똑같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sup>72)</sup>이며, ‘눌리우고 시달린 사람’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sup>73)</sup>이다. 또 ‘서럽고 약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sup>74)</sup>들을 말한다. ‘눈물과 피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역시 ‘박해를 받는 사람’과 같다. 이처럼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의 시상은 山上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수의 복음과 차이가 없다. 있다면 朴斗鎭의 것은 詩요 聖書의 내용은 복음을 기록한 것 뿐이다.

언어를 종교적 차원에서 예술적 차원으로 변용, 승화시키는데 있어서 그의 기독교시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연작시 「갈보리의 노래」를 보면 朴斗鎭의 基督教思想이 聖書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69) 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의 복음서.

70) 마태오 5:3~12, 루가 6:20~23.

71) 마태오 5:3.

72) 마태오 5:5. 시편 37:11절에는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되었음.

73) 마태오 5:10.

74) 마태오 5:4.

해도 차마 밝은 채론 비칠 수가 없어  
낮을 가려 밤처럼 캄캄했을 뿐.

방울 방울 가슴의  
하늘에서 내려 맺는 푸른 피를 떨구며,

아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닉…

그 사랑일래 자지러져 죽어간 이의  
바람 자듯 잣아드는 숨결 소리 뿐.

언덕이어. 언덕이어. 텅 비인 언덕이어.  
아무 일도 네겐 없었더니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고보와 마리아와  
멀리서 여인들이 흐느껴 울 뿐.

몇 오리의 풀잎이나 불리웠을지,  
휘휘로이 바람결에 불리웠을지,

언덕이어. 죽음이어. 언덕이어. 고요여.  
아무 일도 네겐 다시 없었더니라.

-「갈보리의 노래·1」 전문

이 시는 십자가상의 예수가 무덤에 들 때까지<sup>75)</sup>의 聖書의 典故를, 그리고 당시 상황을 實存的 悲劇으로 표현, 깊은 감동을 준다. 말하자면 基督教의 史觀, 즉 예수 수난의 역사를 묘사, ‘죽음과 삶의 뜻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치열한 신앙적 詩想으로 표현되고’<sup>76)</sup> 있다. 이 시의 聖書의 典據는 분명히 나타난다.

75) 마태오 27:32-61.

76) 신동욱. 「해와 삶의 原理」(『朴斗鎭詩全集』 2. 汎潮社, p.308).

제1연은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sup>77)</sup>의 詩想이다.

제2연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고통이다.<sup>78)</sup>

제3연은 예수가 숨을 거두면서 큰 소리로 외친 마지막 말씀이다.<sup>79)</sup>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예수 죽음의 이 최후 최절정의 절규는 「使徒行傳·10」 「할렐루야」 「갈보리의 노래·Ⅱ」 「갈보리의 노래·Ⅲ」에서도 발견된다.

제4연은 제3연의 연속된 詩想이다.

제5연은 십자가에 못박혀 숨을 거둔 골고타, 곧 해골산<sup>80)</sup>이라는 언덕을 말한다.

제6연은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 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sup>81)</sup>와 일치한다.

제7연은 해골산의 자못 음산한 죽음의 분위기 묘사다.

제8연은 제5연의 반복·강조다.

이와 같이 「갈보리의 노래·Ⅰ」은 聖書의 典故를 모르고서는 피상적인 시각 상에 그칠 소지마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信仰詩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聖書에 대한 기초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갈보리의 노래·Ⅱ」나 「갈보리의 노래·Ⅲ」 역시 십자가의 救贖史觀을 표상한 시다. 聖書의 典據가 되는 故事에 의하여 형상화된 그의 代表的인 基督教詩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恥辱을, 불 붙는 憤怒를, 애어내는 悲哀를, 불새 같은 孤獨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팽 팽 쳐 붓을 박고 槍 끝으로 거누고, 채찍질  
해 때리고, 입맞추어 背叛하고, 매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強할 수가 있었는가? 波濤같이 밀려 오는 勝  
리의 欲望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敗할 수가

77) 루가 23 : 44~45, 마태오 27 : 45, 마르코 15 : 33.

78) 마태오 27 : 32~44, 마르코 15 : 21~32, 루가 23 : 26~43, 요한 19 : 17~27.

79) 마태오 27 : 45~56, 마르코 15 : 33~41, 루가 23 : 44~49, 요한 19 : 28~30.

80) 마태오 27 : 32~61.

81) 마르코 15 : 40~41, 마태오 27 : 55~56, 루가 23 : 48~49.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弱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 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血滴으로, 어떻게 萬民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神인 줄을 믿었는가?

-「갈보리의 노래·II」 일부분

여기서 이 시를 주장적으로 意味化하고 詩想을 강조하고 긴장시키는 것은 ‘……할 수가 있었는가?’의 반복어귀이다. ‘당신’ 곧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강한 의문과 신비의 세계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의문은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오히려 絶對肯定의 해학을 지닌 시적인 배려이며 뉴앙스이다. 종교가 근본적으로 神秘體驗과 直接 관련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러한 것은 神의 絶對性에 대한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朴斗鎭은 아마 그의 基督教思想, 그의 信仰體驗을 모두 이 시에 함축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초기시에서 ‘해’와 ‘어둠’이 메시아의 再臨과 현실적인 罪의 對位法으로 굴절되었으나, 이 시에서의 ‘어둠’은 보다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삶과 죽음의 판단중지와 같은 絶對孤獨으로 승화되어 있다. 예수가 빌라도에게 잡혀 갈 때,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끌고 갈 때, 무리들이 단죄를 외칠 때 예수는 혼자였다. 혼자인 예수의 고독은 여기서 비유된 바와 같이 바로 ‘바위 같은 어둠’ 그것이었을 것이다. 이 고독의 詩想은 「할렐루야」 「使徒行傳·10」 「聖孤獨」에 짙게 나타나 있어서, 그의 시는 聖書의 靈感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감지할 수 있다. 고독의 詩와 예수가 부르짖은 고독의 聖句를 보면,

- 1) 아프고 무겁고 외로운,  
죽음마저 버림에서 천길로 떠밀리고,  
절대고독 하늘 천지  
홀로였음을

-「할렐루야」 일부분

- 2) 모두는 돌아가고  
적막  
그때  
당신의 그 울음소리를 누가 알까

-「聖孤獨」 일부분

- 3)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성서 「마태오」 8:20

에서처럼 시와 성서를 비교할 때에 비슷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그의 絶對孤獨이 內的自我에 의한 救援의 희생이었다면 ‘뜨물 같은 恥辱’은 外的自我에 의한 神性的 드러남이다. 그것은 치욕을 당함으로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러한 치욕은 이미 제시된 것이었다. 이 ‘恥辱’의 詩想은 대 사제 앞에 선 예수가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 군중과 경비원들이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sup>82)</sup> 조롱한 데서 나온 詩想이다. ‘꽝꽝 쳐 못을 박고 槍끝으로 겨누고’의 시상은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sup>83)</sup>와 관련된 것으로 「使徒行傳·10」 「할렐루야」 「뜨거운 傷處」 등에서도 똑같은 詩句가 보인다. ‘입맞추어 背叛하고’는 가리웃 사람이며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sup>84)</sup>를 가리킨다. 이 詩想은 잡힌 예수의 故事에서 발상되었다.

솟쳐나는 고운 피여! 언, 언, 銀河에도 한 줄기의 피의 江은 서는데, 떨켜지는 방울마다 타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 아으, 海絨에 적신 초는 너무 달고나. 저 바람소리, 海盜소리, 죽음소리, 어둠소리…… 한낮의 갈보리는 캄캄해져 오는데, 땅들은 갈라지고 무덤들은 트는데

—「갈보리의 노래·Ⅲ」 일부분

여기서는 숨을 거둔 예수의 못자국의 피가 처절한 죽음의 순간을, 그때의 고통을 상기시킨다. ‘海絨에 적신 초는 너무 달고나’는 聖書中 ‘그 중의 한 사람은 곧 달려 가 해변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82) 마르코 14:53~65, 마태오 26:57~68, 루가 22:54~71, 요한 18:12~24.

83) 요한 19:31~37.

84) 마태오 26:47~56, 마르코 14:43~50, 루가 22:47~50, 요한 18:3~12.

봄시다 하고 말하였다<sup>85)</sup>의 시이고, 또 ‘땅들은 갈라지고 무덤들은 트는데’는 ‘바로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sup>86)</sup>’의 시상에 연결된다.

이처럼 朴斗鎭의 基督教詩의 本質은 聖書의 典禮와 故事를 모범으로, 基督教思想과 基督教信仰의 여과를 거쳐, 絶對神性的 세계를 詩化하는데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詩精神의 근원은 자신의 종교적 이념과 메시아思想을 聖書를 통하여 투사시킨 觀念的인 로맨티시즘으로, 그리고 시(기독교시가 아닌 시)의 언어 게임을 넘어서 기독교 정신의 지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絶對者임을 체험한 데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信仰과 體驗의 시세계는 聖書的 신앙과 확신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천지의 한 분이신 대주재자, 빛, 사랑, 진리, 영원, 말씀과 곧 생명, 신이며 인간이신, 영원하고 절대사랑이신 신, 성부 성자 성신의 三位一體<sup>87)</sup>’로서의 絶對神의 眞理를 구원의 신앙으로 드높이는 데 있다.

85) 마태오 27 : 48~49.

86) 마태오 27 : 51~52.

87) 朴斗鎭. 「머나먼 갈보리 그 뜨겁고 진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핏방울」 詩에서.

## 참 고 문 헌

- 朴斗鎭. 『朴斗鎭詩全集』 1~10. 汎潮社, 1982~1984.
- . 『靑鹿詩集』 正音文化社, 1983.
- .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弘盛社, 1983.
- . 『韓國現代詩論』. 一潮閣, 1970.
- . 『現代詩의 理解와 體驗』. 一潮閣, 1976.
- . 『詩와 詩의 樣式』. 『文章』, 1940.1.
- . 『永遠한 詩와 當代의 詩』. 『現代詩學』, 1977.4.
- 朴喆熙. 『信仰과 現實認識』. 『文學과知性』, 1972(10호).
- 金奉郡. 『朴斗鎭論』(金奉郡外. 『韓國現代作家論』. 民知社, 1984).
- 朴喆熙. 『朴斗鎭論』(徐廷柱外. 『現代詩人論』. 螢雪出版社, 1982).
- 朴哲石. 『朴斗鎭論』. 『韓國現代詩人論』. 學文社, 1982.
- 朴哲石. 『韓國現代詩에 나타난 自然觀』. 『現代詩學』, 1976.2.
- 朴喆熙. 『갈증과 解消의 方法』. 『文學思想』, 1982.9.
- 鄭漢模. 『靑鹿派의 詩世界』. 『現代詩論』. 普成文化社, 1982.
- 蔡奎判. 『朴斗鎭·徐廷柱의 詩世界』. 『韓國現代比較詩人論』. 探求堂, 1982.
- 吳圭原. 『선비意識과 超克意志』. 『現實과 克己』. 文學과知性社, 1978.
- 具仲書. 『義人意識과 高山植物』. 『民族文學의 길』. 새발, 1979.
- 李永傑. 『基督教와 韓國現代詩』. 『英美詩와 韓國詩』. 文學藝術社, 1981.
- 崔一秀. 『朴斗鎭의 ‘아, 民族’』. 『現代文學』. 1971.5.
- 朴太旭. 『韓國現代詩의 基督教思想』. 高麗大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3.
- 李洵植. 『朴斗鎭論—變貌한 詩의 地平』. 『現代文學』, 1965.11.
- 鄭泰裕. 『朴斗鎭論』. 『現代文學』, 1970.4.
- 金一薰. 『朴斗鎭試論』. 『現代文學』, 1972.6.
- 徐廷柱. 『朴斗鎭의 詩』. 『韓國의 現代詩』. 一志社, 1969.
- 朴鎭煥. 『朴斗鎭論』. 『韓國詩와 傳統』. 三寶文化社, 1975.
- 鄭玄宗. 『사회적<sup>1)</sup> 걱정, 정서적<sup>2)</sup> 걱정』. 『숨과 꿈』. 文學과知性社, 1982.
- 金海星. 『靑山과 海의 詩觀』. 『韓國詩論』. 進明文化社, 1980 (재판).
- 金柱演. 『뜨거운 해와 차가운 돌 사이』. 『나의 칼은 나의 작품』. 民音社, 1975.

- 김 현, 「朴斗鎭 혹은 자연과 분노」, 『韓國文學史』, 民音社, 1982 (중판).
- 金鍾哲, 「시와 역사적 상상력」, 『시와 역사적 상상력』, 文學과知性社, 1978.
- 오동춘, 「혜산 朴斗鎭論—신앙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58호.
- 金容稷, 「시와 신앙—朴斗鎭의 경우」, 『現代詩學』, 1974. 12.
- 朴陽均, 「祈禱의 樣相—朴斗鎭論」, 『詩와 批評』, 1956. 2.
- 金春侏, 「敘述의 心象과 比喩의 心象—두 편의 시를 예로 하여」, 『意味와 無意味』, 文學과知性社, 1976.
- , 「두 개의 寂寞 사이—木月과 斗鎭의 詩의 現住所」, 『詩의 表情』, 文學과知性社, 1979.
- 黃東奎, 「시의 소리」, 『사랑의 뿌리』, 文學과知性社, 1977(2쇄).
- 李裕憬, 「朴斗鎭의 使徒行傳」, 『現代詩學』, 1973. 3.
- , 「水石과 詩의 一體化—朴斗鎭詩集〈水石列傳〉의 世界」, 『現代詩學』, 1974. 5.
- , 「斗鎭先生과 木月先生의 新作」, 『現代詩學』, 1971. 6.
- 李哲範, 「詩의 比喩와 存在에의 暗示—기독교적 세계관의 自然과 純粹自然」, 『現代와 現代詩』, 文學과知性社, 1977.
- 金賢子, 「朴斗鎭과 生命의 探究」, 『韓國現代詩史研究』, 一志社, 1983.
- 정현기, 「朴斗鎭論」, 『연세어문학』 9·10합집, 1977.
- 洪申善, 「상승과 초월의 변증법—朴斗鎭의 詩世界」, 『朴斗鎭』, 知識産業社, 1983.
- 趙演鉉, 『現代韓國作家論』, 文明社, 1970.
- 丘昌煥, 「韓國文學의 基督教思想 研究」, 『韓國言語文學』 제15집, 1977.
- 張一宇, 「朴斗鎭論」, 『靑鹿集其他』, 1968. 11.
- 金潤成, 「朴斗鎭」, 『現代公論』, 1953. 12.
- 趙演鉉, 「星辰에의 信仰—朴斗鎭」, 『東海公論』, 1949. 3.
- 金東里, 「三家詩와 自然의 發見—朴木月·趙芝薰·朴斗鎭에 대하여」, 『藝術朝鮮』, 1948. 4.
- 鄭孔采, 「自由와 사랑—朴斗鎭의 ‘魔의 늪」, 『心象』, 1974. 9.
- 尹在根, 「詩人의 儀와 吟—朴斗鎭의 ‘靑山道」(鄭漢模·金載弘, 『韓國代表詩評說』, 文學世界社, 1983).